

## ▼ 01. 🍆 = (불가능한) 증언

🍆 기억해달라고 윤은 말했다. 직면하고 🍆 해달라고 윤은 말했다. (...) 하혈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🍆 할 수 있는가? 이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,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🍆 할 수 있는가? 타인과,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건딜 수 없게 됐다고 🍆 할 수 있는가? (...) 한강. *소년이 온다*. 서울: 창비, 2014., [페이지 번호].

🍆 (...) 나는 그저 타이완 중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농가의 아들로, 밭에 나가 수확을 하고 차를 몰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화려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. 하지만 죽음은 일종의 기묘한 전환이라 귀신이 된 뒤로 🍆 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.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. 귀화, 귀신의 말이다. 사실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나는 별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. (...) 천쓰훙. *귀신들의 땅*. 허유영 옮김. 서울: 민음사, 2023. [페이지 번호].

🍆 앞선 세대의 예술인, 활동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‘🍆의 생산’에 힘썼다면, 이제는 🍆의 생산과 매개 과정을 이루는 🍆을 섬세하게 드러내고, 🍆이 결코 하나의 틀로 매끄럽게 환원될 수 없음을 상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. 직접 청취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🍆의 균열을 이제는 매개된 🍆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. 따라서 🍆을 다루는 비판적인 동시대 예술 실천은 ‘증언 이후’ 세대 관객의 ‘🍆 문해력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 *증언미학: <매체, 테크놀로지, 그리고 “증언 이후”에 부쳐*

## ▼ 02. 👤 = 유령, 망령, 귀신

🍆 (...) 나는 그저 타이완 중부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농가의 아들로, 밭에 나가 수확을 하고 차를 몰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화려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. 하지만 죽음은 일종의 기묘한 전환이라 👤이 된 뒤로 모든 언어의 한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.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. 귀화(변금), 👤의 말이다. 사실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나는 별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. (...) 천쓰훙. *귀신들의 땅*. 허유영 옮김. 서울: 민음사, 2023. [페이지 번호].

👤 👤는 권력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거나, 도전받거나, 붕괴되는 괴로운 시기에 등장하는데, 모든 곳에서 👤가 확산되고 있다. 라베토와 나는 👤와 관련한 공포에는 관심이 없다. 그보다는 👤의 현존과 응시, 살아 있는 것을 사로잡는 그들의 능력, 소유와 자기 통제 개념에 도전하는 그들의 방식이 관심이 있다. 한편, 비물질화되고 디지털화된 👤는 거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. 미디어는 이미지를 등록, 보존, 재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이는 👤와 👤의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접근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. (...) 주류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재현과 서사에 기반하여, 우리는 아시아의 👤가 복수와 관련 있다고 가정 중이다. 오민. *동시*. 서울: 작업실유령, 2024.

👤 한국어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마치 👤처럼 존재한다. (...) 이른바 ‘👤성’이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그 공간 속에 ‘가능성’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. (...) 이처럼 👤가 만들어 내는 가능성의 공간이야말로 나에게서 한국어의 가장 큰 매력이다. 보메이, “탈-비주류, 한국문학,” *릿터*, no. 51 (2024): 20-23.

👤 기원을 모르는 죄와 출처 없는 👤는 계속해서 되살아난다. 이 압도적으로 광활한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이 이미 역사라고, 혹은 정반대로 그 무엇도 역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구멍 난 해골 앞에 선 자들은 다르게 말한다. 시간이 축적된 “땅을 움켜잡고” 버티며 서 있되, 구멍의 열림, 그 ‘무지’를 향해서도 온전히 열려 있는것. 것처럼 시간을 다르게 헤아리는 것이 소설이 지닌 역사적 가능성이라고 말이다. 최가은, “구멍난 해골 - 김숨의 역사 쓰기,” *릿터*, no. 51 (2024): 38-41.

👤 "To learn to live with 👤,👤,👤,👤,👤," and to live "more justly" (...) Engaging this learning requires, as Derrida writes, "a politics of memory, of inheritance and of generations." *The Anthropology of Being Haunted: On the emergence of an anthropological hauntology*, Byron J. Good, Andrea Chioventa, Sadeq Rahimi